

첨삭답안	연세대학교 2012 인문 '낭비' 1번	작성자	레리꼬 님
------	-----------------------	-----	-------

**[문항 1]**

제시문 (가)와 (나)는 낭비의 대한 상이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1. 우선, (가)는 낭비를 긍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다. (가)는 낭비를 자아본위에 입각한 생명력의 표출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낭비 정신이 확장되어 인문학,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2. 반면, 나는 낭비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 통제의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인간 행동의 효율성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낭비의 제거 가능성에 있어서 상이한 관점을 보인다. (가)는 낭비를 인간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며 제거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낭비 정신은 통제 불가능하며 제거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낭비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제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길브레스는 벽돌공들의 행동을 수학적, 과학적 방법 즉,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하여 낭비의 제거를 지향한다. 인간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다.

3. 이러한 (가), (나)의 주장을 통합하여 제시문 (다)를 비판할 수 있다. (다)는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서는 '원근단축'이라는 낭비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나)의 길브레스와 유사한 주장이지만, 낭비를 불가피한 생명력의 발현으로 보는 (가)에 의해 비판받을 수 있다. 특정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무수한 기억들이 얼핏 쓸데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들이 언젠간 쓸모 있는 생명력의 발현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는 또한 '원근단축'의 과정 속에는 설명 불가능한 변칙 사례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나)에 의해 비판받을 수 있다. 4. (다)는 인간의 이성으로 낭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다)의 이성으로 설명 불가능한 변칙 사례들은 (나)의 길브레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나)의 길브레스는 변칙 사례가 존재하는 '원근단축'에 대해 불완전한 낭비의 제거 도구라 생각할 것이다.

**[첨삭 포인트]**

1. (가)는 낭비, 즉 도락을 본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낭비를 본능으로 바라보는 것이 낭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인가요? 이는 다른 문맥으로, 약간의 비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나)는 낭비를 제거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낭비가 부정적인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거한다고 '추론'하면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으나 (가)를 긍정이라고 바라보기엔 어느 정도 비약의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3. 제시문 (다)의 원근단축이 낭비에 대해 어떤 관점인지를 설명 후, 연결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니 중간의 내용이 붕 뜨는 느낌이 있습니다.
4. (다)는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통제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을 뿐 완전한 통제는 비약입니다. 따라서 이를 연결할 때는 (나)에서 길브레스의 노력이 (다)에서 이루어지지 않기에 한계를 지닌다 정도로 연결하면 좋습니다.

**A-**

총평	전반적으로 좋은 답안입니다, 하지만 비약적 요소가 존재하기에 이를 잘 구분해서서 제시문에 근거한 답안 작성이 요구됩니다.
----	---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환 논술 (煥 論 述)